확산 예방: vaccination\_policy(19), testing\_policy(17), contact\_tracing(18), Public\_information\_campaigns(30)

-> Multiple R-squared: 0.2152, Adjusted R-squared: 0.2095(CCI만)

~~Multiple R-squared: 0.3851, Adjusted R-squared: 0.3703(CCI+코로나 정보)~~

접촉 제한: Facial\_coverings(27), Cancel\_public\_events(31), restriction\_gatherings(32), school\_closures(22), workplace\_closures(25), stay\_home\_requirements(23), : Restrictions\_internal\_movement(29), close\_public\_transport(21)

-> Multiple R-squared: 0.1778, Adjusted R-squared: 0.1718

~~Multiple R-squared: 0.4051, Adjusted R-squared: 0.3908~~

경제적 지원: Income\_support(28), debt\_relief(20)

-> Multiple R-squared: 0.0291, Adjusted R-squared: 0.02734

~~Multiple R-squared: 0.3315, Adjusted R-squared: 0.3255(income과 관련된 값들이 묻힘->영향 low)~~

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코로나와 CCI 간의 높은 상관 관계로 인해 policy와의 관계가 묻혀버리는 관계로, 코로나 데이터를 배제하고 policy와 CCI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.

가장 높은 R-squared 값을 보여준 것은 0.2095로 나온 확산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다. 여기에는 백신 정책, 코로나 검사 정책, 확진자 동선 추적, 코로나 정보 제공 캠페인 등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을 예방하는 정책들이 주로 위치해 있다. Pr(>|t|) 값을 살펴보면 백신 정책이 < 2e-16, 코로나 검사 정책이 1.01e-07로 다른 요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. 이는 이들 검사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서, 시민들이 백신과 코로나 검사를 통해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음을 볼 수 있다.

두번째로 높은 R-squared 값을 보여준 것은 0.1718의 접촉 제한 정책이다. 여기에는 학교 및 직장의 폐쇄, 이벤트 취소, 마스크 착용 등 접촉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. Pr(>|t|) 값을 살펴보면 school\_closures가 6.85e-08, facial\_coverings은 < 2e-16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. Cancel\_public\_events, restriction\_gatherings, workplace\_closures, stay\_home\_requirements의 경우에는 반대로 낮은 유의성을 지녀 backward elimination 과정에서 제거되었다.

school\_closures의 경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수가 음수로 나타난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했을 때부터 school\_closures가 고려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, school\_closures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곧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를 의미하기에 CCI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. 즉, school\_closures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이 아닌 만큼 school\_clos school ures의 실행이 코로나의 빠른 확산세를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. 또는, 학교가 폐쇄될 정도로 나쁜 상태라는 인식으로 인해 shcool\_closures가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다.

제거된 요소 중 cancel\_public\_event의 경우, 너무 한 상태에 몰려 있는 것이 통계적 유의성을 잃은 원인으로 보인다. 보통 가장 data가 몰려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0.4 정도임을 감안하면, 0.6720이 나온 cancel\_public\_event의 경우 과도하게 하나의 상태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다른 요소들 또한 restriction\_gathering이 0.5657, workplace\_closure가 0.4900, stay\_hom\_requirements가 0.5513 으로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재정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, R-squared 값이 0.02734 정도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. 이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재정 지원이 코로나의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재정 지원은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으로, 그 결과가 코로나의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.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, CC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의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, CCI 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.